

(신흥) 2020 공공예술창작소 공공예술프로젝트 공모 심사 총평

이번 신흥공공예술창작소 2기 입주 단체 선정 2차 심의에서 총 11팀이 선정되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대면심사 대신 유선심사로 진행하였다. 이 중 서류 결격으로 인한 1팀과 유선심사를 포기한 1팀을 제외하고 9팀 중 3팀을 입주 단체로 선정했다.

시각 분야의 지원에 국한했던 1기와 달리 이번 2기 입주 단체는 다양한 장르로 영역을 넓힌 결과 디자인, 음악 등 타 장르의 지원도 적지 않았다.

작가 개인의 창작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작가 고유의 예술 역량이 지역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공공성 부분에 염두를 둔 단체를 선정하였다.

그렇다고 작가가 지향하는 창작의 고유성보다 공공성에 무게 중심을 두었다는 것은 아니다. 유연하게 연결되고 균형감을 가지려 노력한 점을 우수하게 평가하였다.

지역과 프로젝트의 소재를 대상화하지 않고, 창작자도 참여자도 함께 창작하고 남기고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 노력하는 팀에게 입주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면심사가 아닌 유선심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지원자님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인사말씀 올린다.

2020. 04. 13.

심사위원 : 박동우 (서명)

심사위원 : 이미경 (서명)

심사위원 : 이정화 (서명)